

百濟周留城의 研究

金 在 鵬

[附] 燕岐碑岩寺의 研究

1995. 1

燕 岐 郡

이 研究 및 論文出版은 燕岐郡의 研究補助金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徐龍錫 燕岐郡守를 비롯하여 燕岐郡議會議員 여러분과 張英조치원문화원장 그리고 관계 諸位의 깊은 이해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目 次

序 言	7
-----	---

史 料	9
-----	---

제 1 장

1. 新羅軍의 目的地는 熊津城	11
2. 「中路」는 百濟都城(熊津) 附近	12
3. 中部久麻怒利城과 余自進	13
4. 中部久麻怒利城은 誤記가 아니다.	15

제 2 장

1. 熊津王都와 燕岐의 山城群	17
2. 百濟末救國抗爭과 燕岐의 山城群	18
3. 燕岐의 古地名 - 豆仍只縣의 解釋	18
4. 州柔 즉 周留는 「地名地」- 周留城의 條件	19
5. 燕岐의 巨大한 古沙比城	20
6. 古沙比城과 葛嶺道	21
7. 古阜의 金沙山과 扶安의 蓑山	22

제 3 장

1. 白江 즉 白村江은 安城川 河口의 白石浦	24
2. 白村江 海戰과 周留城 總攻擊	26
3. 周留城의 最後와 弓禮城의 위치	29
4. 寶城의 兆陽城과 保寧의 藍浦城	30

제 4 장

1. 燕岐地區의 戰略的 價置	34
2. 三年山城부터 燕岐까지	34
3. 古沙此城과 葛嶺道	35
4. 新羅軍의 大敗와 遁還路	36
5. 中部와 西部의 連帶에 對하여	38
6. 定山과 豆陵尹城	39

제 5 장

1. 周留城扶安說에 對하여	43
2. 周留城韓山說에 對하여	45
3. 周留城洪州說에 對하여	48
(ㄱ) 「洪州牧本百濟周留城」은 虛構	48
(ㄴ) 周留城洪州說과 任存城	49
(ㄷ) 황당한 白江內浦說	50

序 言

660년 7월에 羅唐軍에 의하여 泗泚王城과 熊津城이 함락한 이후 663년 9월까지 百濟復興의 抗戰의 本據地이며 豊王의 王城으로 歷史上 이름 높은 周留城의 現地에 관한 研究로 韓山說과 扶安說과 燕岐說과 洪州說이 있어서 너무도 오랜 세월 臆論을박하여 끌어왔으니 이제는 네가지 설중에서 어느 하나가 正論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또는 네가지 설 모두가 正論이 못되어 도태 폐기하여야 할 것인지? 判가름할 때가 된 것이다.

이와같은 인식과 목적에 의하여 준비된 이 論考에서는 이전에 발표했던 論考와는 좀 달라서 가혹하도록 엄밀한 史料의 선택과 비판과 해석이 있고 또한 異說에 대한 기탄없는 분석 비판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도태 폐기할 것은 거침없이 도태 폐기하여야 할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하나의 正論으로 燕岐說만이 남아야 하고 남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밝혔으니 이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기탄없는 高評을 바랄 뿐이다.

1995년 1월 10일

金 在 鵬

史 料

〔史料A〕三國史記 新羅紀 太宗8年春2月

百濟殘賊來攻泗泚城 王命伊浪品日爲大幢將軍，迺浪文王·大阿浪良圖，阿浪忠常等副之，迺浪文忠爲上州將軍 阿浪眞王副之 阿浪義服爲下州將軍，武歎·旭川等爲南川大監 文品爲誓幢將軍 義光爲郎黨將軍 往救之。

三月五日 至中路 品日分麾下軍 先行往豆良尹(一作伊) 城南相營地，百濟人望陣不整 猝出急擊不意，我軍驚潰北。十二日 大軍來屯古沙比城外 進攻豆良尹城 一朔有六日 不克。四月十九日班師，大幢誓幢先行下州軍殿後 至賓骨壤 遇百濟軍相鬪敗退，死者雖小 失亡兵械輜重甚多 上州郎幢 遇賊於角山 而進擊克之，遂入百濟屯堡 斬獲二千級。王聞軍敗大驚 遣將軍金純·眞欽·天存·竹旨濟師救援，至加尸兮津 聞軍退至加召川 乃還

〔史料B〕三國史記 新羅紀 文武王下

大王報書云 至(顯慶)六年 (龍朔元年) 福信徒黨漸多 侵取江東之地 熊津漢兵一千 往打賊徒 被賊摧破 一人不歸 自敗已來 熊津請兵日夕相繼 新羅多有疫病 不可徵發兵馬 苦請難違 遂發兵衆往圍周留城 賊知兵小遂即來打 大損兵馬 失利而歸 南方諸城 一時 摠叛 並屬福信

〔史料C〕三國史記 百濟紀 義慈王(龍朔元年)

羅王春秋奉詔 遣其將金欽 將兵救仁軌等至古泗 福信邀擊敗之 欽自葛嶺道遁還 新羅不敢復出

〔史料D〕日本書紀 齊明6年

於是西部恩率鬼室福信赫然 憤據任射岐山(或本云 北任敍利山)，達率余自進據中部 久麻怒利城 (或本云 都都岐留城) - 國史大系本

(或本云, 都留岐城) - 鈴鹿氏所藏中臣連重本

唐劉仁願紀功碑(推定新羅文武王三年建) 鬼室福信… 隳城破邑漸入中部

〔史料E〕 日本書紀 天智天皇 2年 9月

九月辛卯朔丁巳 百濟州柔城始降於唐 是時國人相謂之曰 州柔降矣 事無柰何 百濟之名絕于今日 丘墓之所豈能復往 但可往弓禮城會日本軍將等相謀事機所要 遂教本在枕服岐城之妻子等今知去國之心 ○辛酉 發途於牟弓 ○癸亥 至弓禮 ○甲戌 日本船師及佐平余自進 達率木索貴子 谷那普首 憶禮福留 并國民等等至於弓禮 明日發船始向日本

日本書紀 天智天皇 10년 정월

是月. 以大錦下授余自進 沙宅紹明 法官大輔. 以小錦下授鬼室集射 學職頭 以大山下授達率谷那普首 閑兵法….

제 1 장

(1) 新羅軍의 目的地는 熊津城

[史料A] 에 전하듯이 661년 2월에 新羅에서는 大軍을 破견하였는데 3월 5일에 先鋒部隊가 中路에 이르러 먼저 豆良伊城의 南으로 접근하며 陣地를 살피는데 百濟軍이 갑자기 나타나 공격해옴으로 놀라서 大敗하고 돌아왔다. 3월 12일에는 마침내 新羅의 大軍이 古沙比城外에 주둔하고 豆良伊城으로 進攻하여 36일간을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4월 19일에 돌아왔다는 것인데 이 新羅軍은 熊津城을 목적지로 하고 慶州를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新羅에서 大軍을 破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史料A] 에서는 百濟의 殘賊이 泗泚城을 공격하였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史料B] 에서는 661년초에 熊津城에서 唐軍이 포위되어 급박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熊津請兵 日久相繼」라고 하듯이 熊津城에서의 請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간절한 청을 어길 수 없어서 破견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史料C] 에서는 新羅의 太宗 金春秋가 熊津에서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에 몰렸던 劉仁軌등을 구원해 달라는 唐帝의 詔書를 받고 新羅에서 大軍을 破견하였다고 전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史料A] 에서는 [史料B·C] 에서와는 달리 百濟의 殘賊이 泗泚城에 來攻하였기 때문에 泗泚城을 구하기 위하여 新羅에서 大軍을 破견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史料A] 와 [史料B·C] 사이의 모순이지만 이 모순은 史料취급의 원칙에 따라 소위 文武王報書로서 當時의 文書인 [史料B] 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 당시 劉仁軌등이 泗泚城에 포위되었던 것이 아니라 熊津城에 포위되었던 사실을 근거로 하여 [史料A] 의 泗泚城을 熊津城으로 고쳐봄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와같이 [史料A·B·C]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은 661년 2월에 新羅에서 大軍을 破견한 것은 당시 熊津城에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에 몰려 있었던 劉仁軌 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그 新羅의 大軍은 당연히 熊津城을 최후의 목적지로 하고 慶州를 출발하였으라는 것이다.

(2) 「中路」는 百濟都城(熊津) 附近

한편 [史料A] 에서 보듯이 新羅軍의 先鋒部隊가 3월 5일에 「中路에 이르다」(至中路) 라고 하였는데 이 中路에 대하여 일찍이 日本學者 今西龍은 「百濟五方五部考¹⁾」 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日本書紀齊明紀에 久麻怒利城 즉 熊津城을 中部久麻怒利城이라 기록하고…唐劉仁願 紀功碑에는 福信이 久麻怒利의 지방으로 침입한 것은 「隳城破邑漸入中部」라고 기록하였다. 三國史記太宗8年(661년) 3월 5일에 新羅軍이 百濟都城附近에 도달한 것을 「中路에 至하다」라고 기록하였다.

周書·北書 등에 「中方曰古沙城·東方曰得安城·南方曰久知下城·西方曰刀先城·北方曰熊津城」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熊津王都時代末期의 일이며 이와같은 五方은 그후 沙泚王都時代가 되며 全國을 五部로 分統하면서 中部가 久麻那利城 즉 熊津城이었던 것이다.²⁾

따라서 [史料D] 의 日本書紀齊明紀에 전한 바에 의하여 또는 劉仁願紀功碑에 전한 바에 의하여 661년 당시 中部라고 하면 熊津城을 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어서 「中路에 至하다」라는 것도 「百濟都城(熊津城) 附近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熊津請兵 日久相繼」하고 唐帝의 詔書까지 받고서 熊津城에 포위된 劉仁軌 등을 구원하기 위하여 慶州를 출발한 新羅軍은 당연히 熊津城을 향하여 갔을 것이며 熊津城을 향하여 간 新羅軍은 당연히 百濟都城(熊津城) 부근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新羅軍이 中路 즉 百濟都省(熊津城) 附近에 도달하여 공격한 山城이 豆良伊城(周留城)이며 豆良伊城(周留城)을 공격하기 위하여 주둔한 곳이 古沙比城外라고 하였으니 豆良伊城(周留城)과 古沙比城은 분명히 中路 즉 百濟都城(熊津城) 부근에 있는 山城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自葛嶺道遁還」의 葛嶺都 또한 古沙比城과 함께 百濟都城(熊津城) 부근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이 논문은 그의 「百濟史研究」에 수록되어 있다.

2) 百濟의 五方制度는 명목만 전할 뿐 실시한 흔적은 뚜렷하지 않고 五方制度의 실시만이 보일 뿐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今西龍의 앞의 논문 참조.

이와같이 [史料A·B·C]의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들 즉 (ㄱ)661년 2월에 新羅軍은 熊津城을 목적지로 하고 慶州를 출발하고 (ㄴ)豆良伊城(周留城)은 中路인 百濟都省(熊津城) 부근에 있었다는 사항들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補完하여 確固不動한 歷史事實로 確定해 주는 것이 [史料D·E]의 내용일 것이다.

(3) 中部久麻怒利城과 余自進

日本書紀齊明 6년(660년)조에는 그해 7월에 있었던 羅唐軍에 의한 敗亡의 모양을 소상히 전하고 이어서 鬼室 福信과 余自進의 起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史料D).

於是西部恩率鬼室福信赫然發憤據任射岐山(或本云.北任絃利山). 達率余自進據中部久麻怒利城(或本云.都都岐留山)-大系本書紀〈但 鈴鹿氏所藏中臣連重本에는(或本云.都留岐城)이라 전함〉

이것으로 보아 661년 당시 任存城이 있는 禮山·洪城方面이 西部이며 久麻怒利城 즉 熊津城이 있는 公州·燕岐方面이 中部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西部任存城을 근거로 하였다는 鬼室福信은 탁월한 軍略家로서 유명하지만 中部熊津城을 근거로 하였다는 達率余自進은 [史料E]에서와 같이 663년 9월 7일에 함락한 周留城(州柔城)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日本으로 망명한 人物로 유명하고 후일 天智의 王朝로부터 大錦下의 높은 관작을 받은 人物로서 유명하다. 余自進에 관한 이와같은 日本書紀의 記事들은 當時의 記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史料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判斷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余自進은 中部久麻怒利城을 근거로 하였다.

余自進은 周留城(州柔城)에서 日本으로 망명하였다.

따라서 周留城(州柔城)은 中部 久麻怒利城에 있었다.

그러면 이와같은 判斷에 무슨 瑕疵가 있고 誤謬가 있는 것일까? 史料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것이니 瑕疵가 있고 誤謬가 있을 까닭이 만무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大系本書紀의 「都都岐留山」과 中臣連重本の 「都留岐城」의 문제인데

들을 놓고 볼 때 大系本의 「都都岐留山」은 「都留岐城」의 오기인 바가 확실해지며 都留岐城의 都留tsu-ru는 周留城(州柔城)의 周留tsu-ru와 그대로 통하니 都留岐城은 周留城(州柔城)에 대한 또하나의 音表記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결국 周留城의 조건으로 中部久麻怒利城의 소속으로 余自進과 관계가 있어야만 周留城일 수 있는 반면 中部久麻怒利城의 소속도 아니고 余自進과도 관계가 없는 것은 절대로 周留城(州柔城)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게된 것이다.

물론 中部久麻怒利城 즉 中部熊津城이라고 할 때 熊津城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熊津城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公州와 그 부근 일원의 범위로서 全國을 五部로 分統한 하나로서의 中部熊津城이다.

따라서 660년 7월에 泗泚城에 이어 熊津城 자체가 羅唐軍에게 함락당한 이후 余自進이 中部熊津城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은 余自進이 中部熊津城에 소속된 오늘날의 公州부근(中路)에 있었던 都留岐城=周留城을 근거로 하였다는 뜻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제까지 [史料 A·B·C·D·E]의 검토를 통하여 確定된 確固不動한 歷史事實일 것이다.³⁾

그리고 熊津城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公州부근 일원의 범위라고 할 때 錦江을 끼고 公州에 隣接한 오늘날의 燕岐郡 일대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와같이 무리없이 順理를 따라 주어진 史料들을 검토할 때 비로소 錦江을 끼고 公州에 隣接한 中路 즉 오늘날의 燕岐郡 일대에서 豆良伊城(周留城)도 찾아지고 燕岐郡의 最大巨城일 뿐 아니라 中部最大의 巨城으로 古沙泚城도 찾아질 것이다. 그리고 古沙泚城 밖에서 葛領道도 찾을 수 있고 아울러 661년 2월에 新羅의 大軍이 燕岐까지 進擊할 수 있었던 루트로서 慶州를 떠나 尙州를 거쳐 報恩의 三年山城으로 나와 三年山城부터 錦江 東쪽을 통하여 懷人-文義-燕岐를 잇는 루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三年山城은 忠淸道領域內에 設置되었던 新羅不敗의 前哨基地였고 百濟時代의 一牟山郡이며 統一時代의 燕山君은 燕岐-文義-懷人을 이어 報恩에서 新羅의 三年山城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 루트를 따라오면 錦江을 건너지 않고⁴⁾ 美湖川下流의 얇은 물을 건너

3) [史料A·B·C]와 [史料D·E]가 相互 補完관계에 있고, 또한 [史料A·B·C·D·E] 모두가 相互 補完관계에 있는 綜合的·構造的인 史料群인 점에 유의하며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661년 3월 당시 新羅軍이 錦江을 건너지 않고 燕岐를 거쳐서 熊津城에 接近할 수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서 中路 燕岐로 올 수 있다. 필경 661년 2월에 新羅軍은 이 루트를 따라 中路 燕岐로 진격한 것이다. 목적은 물론 熊津城에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에 몰려있었던 劉仁軌 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熊津城이 百濟軍에게 占領당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中路 燕岐로 진격한 것이리라.

(4) 中部久麻怒利城은 誤記가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까지 諸史料의 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內容들을 한번 더 다지기 위하여 周留城扶安說의 驍將 全榮來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7월에 백제가 망하자 恩率鬼室福信은 「任射岐城」에 達率余自進은 「中部久麻怒利城」에 각각 據點을 두고 散率을 모아 兵器를 탈취하여 도리어 精銳部隊가 되자 唐도 감히 넘나들지 못하고 國人들은 두사람을 佐平으로 높이 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中部久麻怒利城이란 바로 旧王都가 있던 熊津임을 日本書紀 雄略紀에 「久麻那利」가 있음으로 명백하다. 여기에 註記한 「都都岐留城」은 百濟義兵의 兩大據點인 任存城¹⁾·周留城 중 周留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都都岐留로서는 借音上 周留에 對比되지 않는다. 이는 「都留岐」의 誤寫로 보아야 할 것이다.

「都留岐城」은 「ツルキノサン」가 될 것이니 都留의 日音 to-riu>tsu-ru는 州流·周留에 同音이 된다. 따라서 中部久麻怒利城이라 함은 常識적으로 잘못 誤記된 것이다.⁵⁾

여기에서 全榮來는 「따라서 中部久麻怒利城이라함은 常識적으로 잘못 誤記된 것」이라고 하였지만 무엇을 따라서 中部久麻怒利城이 常識적으로 잘못 誤記된 것이라는지 모르겠다. 즉 都都岐留城이 都留岐城의 誤記일 것이니 中部久麻怒利城이 誤記라는 것도 같고 都留岐城이 周留城일 것이니 中部久麻怒利城이 誤記라는 것도 같다. 그리고 都留岐城=周留城은 扶安이니 中部久麻怒利城은 誤記라는 것 같지만 만일 中部久麻怒利城이 誤記가 아니라면 어찌 되는 것일까?

中部久麻怒利城이 誤記가 아니라면 都留岐城=周留城이 中部久麻怒利城에 소속된 소위 中路 즉 百濟都城(熊津城) 부근에 있었던 山城으로 確定되기 때문에 必然적으로 周留

5) 「周留城·白江 位置比定에 관한 新研究」 扶安郡刊 55 P

城扶安設은 설자리를 잃고 도태 폐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와같이 周留城扶安設은 — 周留城扶安設만이 아니라 周留城韓山設과 周留城洪州設까지도 — 中部久麻怒利城이 誤記로서 도태 폐기되지 않고는 절대로 버틸수 없는 說이기 때문에 誤記라고 주장한 것이지만 [史料A·B·C·D·E] 와 특히 劉仁願紀功碑 등에 받쳐져서⁶⁾ 절대로 도태 폐기될 中部久麻怒利城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中部久麻怒利城이 절대로 도태 폐기되지 않을 것이니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扶安說과 함께 韓山設과 洪州設까지 한꺼번에 모두 설 자리를 잃고 도태 폐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周知하는 바와 같이 今西龍과 그를 이은 全榮來의 周留城扶安設은 中路가 古阜 즉 古沙夫里였다는 假定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7) 661년 2월 당시 그로부터 100여년전에 泗泚時代가 되면서 이미 百濟人들이 보편적으로 熊津城을 中部라고 하였기 때문에 倭人들만이 아니라 唐人들까지도 그들의 正史인 日本書紀에 또는 金石文인 劉仁願紀功碑 등에 熊津城을 中部로 刻記한 정도인데 어떻게 661년 2월 당시 中路가 古阜였다는 假定에 근거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中部久麻怒利城이 誤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誤記가 아니기 때문에 原典史料의 中部久麻怒利城이 절대 도태 폐기될 까닭이 없는 것이니 이번에는 절대로 中部久麻怒利城과 관계가 없는 扶安說과 함께 韓山設과 洪州設까지 살아남을 도리없이 설 자리를 잃고 모두 도태 폐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中部久麻怒利城에 소속한 周留城燕岐說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史料A·B·C·D·E] 의 限界이니 여기에 再論의 余地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6) [史料A·B·C·D·E] 가 相互 補完관계에서 있는 綜合的·構造的인 史料群이다. 中部久麻怒利城이 誤記일 可能性은 全無하다.

7) 그나마 原典史料의 中部久麻怒利城에 대하여 誤記를 주장한 扶安說의 水準에 비교하여 어렵없이 못미치는 史料無關의 魚魯不辨으로 韓山說과 洪州說이라 할 것이며 특히 西部任存城의 南20리에 위치한 西部洪州에 周留城이 있었다는 洪州說은 처음서부터 넌센스라 할 것이다.

제 2 장

(1) 熊津王都와 燕岐의 山城群

475년에 長壽王이 倂呑한 高句麗軍에 의하여 漢山王都는 함락하고 蓋鹵王은 잡혀서 죽었다. 그리고 文周王이 南으로 쫓겨내려와 車嶺山脈南의 熊津(公州)에 새로 도읍을 정하였다. 그리고는 百濟에서 熊津王都를 수호하기 위하여 燕岐郡(旧燕岐縣과 旧全義縣이 합하여 성립됨)의 범위내에 많은 山城들을 쌓아야만 하였다. 廣州(漢山)에서 稷山·天安을 거쳐 車嶺山脈을 넘어 熊津과 儒城으로 가는 모든 길이 燕岐郡으로 통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山城들을 北에서 南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大東輿地勝覽 全義縣

- 甌山 在縣西北五里鎮山. 甌山山城石築周九百三十二尺內有一井今廢
- 高山 在縣東八里. 高山山城 石築五千一百三十二尺內有三井今廢
- 雲住山 在縣南七里與甌山高山鼎峙. 金伊城 在雲住山石築周一千五百二十八尺內有一井今廢
- 李城 在雲住山北峯石築世傳李棹故居其中寬敞周一千一百八十四尺內一井今廢

輿地勝覽에 전하는 이들 山城 이외에 高麗山城·龍子山城·鄉校뒤山城·鵲城 등이 있다.

大東輿地勝覽 燕岐縣

- 城山 在縣東一里鎮山. 城山城 石築周二千六百七十一尺今廢
- 元師山 在縣南五里 ○高麗忠烈王十七年哈丹侵軼王請兵于元世祖遣平章薛閣干領兵來助王以韓希愈金忻等三軍偕元兵與丹兵于縣北清州之界正左山大捷追之公州熊津伏尸三十里斬獲不可勝計俗至今呼駐軍之地

이 외에 南으로 出東山城·黃牛山城이 있으며 芙蓉江一文義一懷仁을 거쳐 報恩에서 三年山城과 대치하고 있다.

錦江을 끼고 公州에 隣接한 燕岐地區는 公州를 東北方에서 감싸고 있다. 그리고 燕

岐地區의 西北으로는 車嶺의 巨脈을 따라서 그리고 東南으로는 美湖川과 錦江의 강줄기를 따라서 무수한 山城들이 박혀 있으니⁸⁾ 天然의 要塞이기도 하고 人工의 要塞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燕岐地區는 本百濟時代에 熊津王都를 東北方에서 감싸주는 강력한 戰略基地로서 北에서 오는 高句麗의 侵入과 東에서 오는 新羅의 侵入으로부터 熊津王都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었다.

(2) 百濟末救國抗爭과 燕岐의 山城群

660년 7월에 羅唐軍은 東과 西에서 泗泚王城으로 진격하여 함락시키고 이어서 熊津城까지 함락시켰다. 그리하여 百濟國의 허리를 끊어 두동강이 내는데 성공하였다. 唐軍이 百濟땅을 점령한 목적은 첫째로 高句麗를 北쪽과 南쪽에서 동시에 협공하여 쳐부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唐軍은 都督府를 泗泚에 두지 않고 熊津에 두었는데 그것은 熊津에서 가깝게 高句麗로 北上 進擊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唐軍은 660년부터 663년까지 한번도 이 길을 이용하여 高句麗南界로 北上 進擊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北漢山州(서울)의 新羅軍도 이 기간동안 이 길로 物資는 커녕 連絡兵 하나를 熊津에 파견하지 못하였는데 물론 燕岐地區의 山城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앞서 燕岐가 本百濟時代에 강력한 戰略基地로서 熊津王都를 東北方에서 감싸준다고 하였지만 660년 7월에 熊津城이 羅唐軍에게 함락당한 이후에는 燕岐地區는 熊津都督府의 唐軍을 東北方에서 포위하고 압력을 가하는 百濟軍의 戰略基地로 변한 것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史料A·B·C] 에서 보듯이 661년 2월경 熊津都督府의 劉仁軌 등을 포위하여 전멸의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3) 燕岐의 古地名一豆仍只縣의 解釋

三國史記地理三 熊津篇에 다음의 기사가 있다.

燕山郡, 本百濟一牟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燕岐縣. 本百濟豆仍只縣. .景德王

8) 이들 燕岐의 山城들은 忠南大와 公州大에 의한 여러차례의 조사결과 百濟城으로 확인되어 忠南道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改名. 今因之. 昧谷縣. 本百濟末谷縣. 景德王改名. 今懷仁縣.

이 기사에 의하여 燕岐縣의 百濟時代의 地名이 豆仍只縣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豆仍只縣의 豆仍只是 山城名일 것이다. 古代地名에서 己=只=支는 山城을 의미하는 地名語尾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豆仍只是 두잉재 - 두잉이재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燕岐縣의 경우 豆仍只 즉 두잉재 - 두잉이재가 그대로 懸名이 되었으니 이 山城은 豆仍只縣의 鎭山에 있어야 할 山城일 것이다.

앞서 인용한 輿地勝覽 燕岐縣에 「城山在縣東一里鎭山. 城山城 石築二千六百七十一尺 今廢」라고 전하였는데 燕岐縣의 鎭山에 있는 山城이 百濟時代의 只仍只 즉 두잉재 - 두잉이재임은 물론이다. 이곳이 현재 燕岐郡南面燕岐里⁹⁾이다. 輿地勝覽에는 이 山城山이라 하고 山城을 城山城이라고 전하였지만 현지에서는 山을 唐山이라 하고 山城을 唐山城이라고 한다.

그리고 豆仍只 즉 두잉이재의 「두잉이」의 뜻에 대하여서는 이 山이 모양이 마치 앉은 여인이 두령이(裳)를 단정하게 입고 앉아 있는 것 같고 이 山城 밑에 있는 옛마을을 현재 訥旺里로 표기하고 누령이고을¹⁰⁾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점으로 보아서 訥旺里의 누령이고을이 百濟時代의 두령이고을로부터 1400년간에 있었던 訛轉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령이고을(百濟時代) - 누령이고을(現在)

(4) 州柔 즉 周留는 「地名也」 - 周留城의 條件

百濟時代에 燕岐의 古地名은 豆仍只 즉 「두령이재」라는 山城名에 縣(고을)이 붙어 豆仍只縣이라는 地名 즉 縣名이 되었다. 豆良伊城·豆陵伊城·周留城·州柔城이 모두

9) 豆仍只縣의 豆仍只의 뜻과 함께 그 위치가 論難의 대상이 되지만 燕岐縣의 鎭山이며 현재 燕岐郡 燕岐里의 唐山에 있는 山城을 豆仍只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 訥旺里의 「누령이고을」은 「누랑이고을」이라고도 하고 「누령이고을」이라고도 한다. 燕岐縣廳은 대대로 訥旺里에 있었다. 唐山城은 訥旺里의 東一里에 있다. 訥旺里의 「누랑이고을」의 명칭이 豆仍只의 해석에 결정적인 傍證이 된다.

豆仍伊城과 함께 「두령이재」의 漢字表記¹¹⁾였을 것이다.

韓半島內에는 도처에 두령이피도 있고 두령이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령이재라는 山城名이 地名 즉 縣名이 되어 百濟時代에 古地名으로 三國史記地理志에 전한 경우는 燕岐뿐일 것이다. 日本書紀에 州柔는 「地名也」라고 설명하였다.¹²⁾

輿地勝覺 燕岐縣에 [郡名 豆仍只 全岐] 라고 하듯이 燕岐의 경우 山城名인 豆仍只 즉 두령이재가 縣名이 되었다.

豆仍只+縣	두령이재+고을
山城名	山城名
縣名(地名)	縣名(地名)

치마(裳)에 앞서 「두령이」(裳)가 있었을 것이며 「두령이」의 뿌리는 동사 「두루다」 일 것이다. 그리고 「두릉이」에서 두릉이(豆陵伊)·두랑이(豆良伊)·두령이(豆仍(伊))·주룽이(周留(伊), 州柔(伊)) 등의 訛音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訛音을 들리는대로 表記한 것이 新羅人의 豆良伊城과 豆陵伊城이며 唐人의 周留城 그리고 倭人의 州柔城일 것이다. 또한 百濟人이 일찍이 나름대로 品位있는 好字를 골라 公式表記한 地名이 「豆仍只縣」일 것이다. 燕岐에는 周留城일 수 있는 또 하나의 基點으로 中部最大의 巨城인 古沙比城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5) 燕岐의 巨大한 古沙山城

앞서 인용한 輿地勝覺 全義縣의 「古山在縣東八里. 高山山城 石築五千一百三十八尺內有三井今廢」가 그것인데 지금도 거대한 周 3,287미터의 이 山城 밑에 「고소재」라는 마을이 있고 山城밑에 天安의 木川으로 넘어가는 「고소재고개」가 있다. 그리고 이 山城의 정상부를 「고사마루」라고 한다. 이와같은 점으로 보아서 이 山城이 고사산성임이 확실하며 고산산성(高山山城)으로 표기한 것은 고사산성을 발음하면 고사산성의 「사」가 산성의 「산」을 닮아서 쉽게 「고산산성」으로 발음된다. 발음되는대로 「고산산성」의 소리를 寫音表記한 것이 「高山山城」일 것이다.

11) 三國史記에는 豆良伊城 · 豆陵伊城으로表記하고 唐書에는 周留城, 日本書紀에는 州柔城으로表記하였지만 같은 두령이재에 대한表記일 것이다.

12) 日本書紀에 있는 이 설명은 간과하기 쉽고 무시하기 쉽지만 이유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全義의 東8리에 있는 이 山城을 현재 일부에서 雲住山城이라고도 하지만 앞서 인용한 輿地勝覽에 전하듯이 雲住山은 全義의 南7리에 있는 山으로 그 山에 金伊城이 있다.

그리고 古沙比城의 비(比)는 아비·할아버지의 경우와 같이 男性尊稱語尾로서 天神인 古沙神의 古沙에 붙은 男性尊稱語尾로서 매우 稀貴한 예라고 할 것이다. 日本語의 古語에 보이는 クスビ神의 ビ(比)가 역시 같은 神名에 붙은 같은 男性尊稱語尾일 것이다.

이 山城의 위치는 燕岐郡 全東面 美谷里이기 때문에 燕岐郡 南面 燕岐里에 위치한 앞서의 豆仍只 즉 두렁이재와 같은 燕岐郡內的 山城으로 두 山城은 南北으로 30리의 거리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던 金伊城은 全東面 松城里에 있고 李城은 全東面 莘芳里에 있어서 서로 연계할 수 있을뿐 아니라 礪确地帶인 車嶺山脈속의 거대한 이 山城들은 燕岐里에 위치한 豆仍只 즉 두렁이재와 20여리의 거리로 쉽게 지원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6) 古沙比城과 葛嶺道

燕岐里는 淸州에서 公州로 가는 길의 중간이며 大田에서 淸州로 가는 길의 중간에 해당되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古代로부터 交通·軍事의 요충이었다는 것은 지금도 예비사단과 통합병원 등 군사시설이 唐山城 즉 百濟時代의 두렁이재 밑에 집중되어 있는 점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서울行列車가 鳥致院驛 못미처 美湖川의 鐵橋에 닿기 직전 西 쪽인 公州쪽으로 3키로쯤 떨어진 美湖川下流 東津나루 위에 여인이 두렁이(裳)를 입고 단정히 앉아있는 단아한 모습을 한 山이 唐山이며 北쪽으로 위협하듯이 鳥致院뒤에 까맣게 높이 솟은 山이 高山山城 즉 고소재가 있는 古沙山이다. 그리고 全東과 鳥致院地區가 古沙比城外가 될 것이며 [史料C]에 「葛嶺道로부터 도망쳐 돌아왔다」(自葛嶺道遁還)고 한 葛嶺道는 古沙比城外 즉 고소재밖으로 全東面 蘆長里의 「갈거리」일 것이다.

燕岐里의 唐山城을 중심으로 30리내에 있는 山城으로 東에 美湖川을 따라 父母山城 - 猪山城 - 黃牛山城 南에 錦江을 따라 元帥山城 - 眞儀里山城, 北에 高山山城 - 金伊城 - 龍子山城 - 李城 - 甌山城 - 高麗山城 - 鄉校뒤 土城 등 百帝城¹³⁾의 遺蹟이 있다. 唐山城은 燕岐縣의 鎭山에 위치한 山城으로 이와같이 많은 山城들을 背景으로 하여 百濟時代에는

13) 비교적 좁은 地域內에 이와같이 많은 山城들의 遺蹟이 集中된 예는 全國의으로도 드물 것이다. 661년 3월에 新羅軍은 이와같이 많은 山城들이 에워싼 복관인 全東·鳥致院地帶로 들어서 고전 끝에 참패한 것이다.

熊津王都의 東北方 關門이 되었고 百濟末에는 이와같이 많은 山城들을 背景으로 하여 熊津城에 가까운 앞줄에서 熊津城의 唐軍을 포위 압박을 가하여 661년 2월의 경우와 같이 熊津城의 唐軍을 전멸의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 물론 그 후에도 663년 9월에 함락하기까지 막강한 軍事力으로 熊津都督府를 포위 위협하여 唐軍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三國史記와 日本書紀 그리고 唐軍에 代表的인 百濟軍의 抗爭基地로서 周留城의 名聲이 높지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周留城이라고 할 때 오늘날의 唐山城만을 의미할 때도 있었고 燕岐地區를 의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燕岐地區의 山城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해발 487미터의 드높은 山頂에 周 3,287미터의 巨大한 石城으로 퇴폐형 山城이며 包谷式 山城인 古沙比城은 燕岐地區의 主城 즉 母城으로 中部의 主城 즉 母城이기도 하였다.¹⁴⁾ 그리하여 燕岐·公州 일대의 많은 山城들을 子城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여기에 문제삼아 풀이한 唐山城·訥旺里·누랑이·고소재·고소재고개·갈거리·雲住山城 등은 國立地理研究員의 5만분지1지도(淸州·全義)에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7) 古阜의 金沙山과 扶安의 叢山

이상으로 앞서 [제1부] 에서 주어진 史料의 검토를 통하여 정립된 歷史事實에 대한 考古學的인 檢証은 끝났지만 他山之石으로 다음과 같은 全榮來의 견해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그는 豆良伊城(周留城)을 扶安郡舟山面의 도롱이피(叢山)에 比定하고 한편 古阜부근에 있다는 金寺洞山城이 古沙山城일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推論하였다.

金寺洞은 金音「금」, 寺音「사」로서「금사골」은「거·사·골」-「고·사·벌」로 轉移하므로 古沙夫里의 訛音寫가 된다. 그러면 金寺山은「古沙山」의 訛寫가 아닐까.¹⁵⁾ 이와같은 推論에 있어서「고사벌」(古, 卜)이「거사벌」(거, 卜)로 轉移하기도 어렵고

14) 燕岐·公州 일대에 이 山城보다 큰 山城이 없고 公州郡에 있는 山城들로서 周1000미터가 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말이다.

15) 「周留城·白江位置比定에 관한 新研究」扶安郡 1976. 9刊 26P

「거사별」이 「금사별」(一, 卜)로 轉移하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陽母音만을 골격으로 하여 지극히 단순하고 안정된 구조인 「고사별」이 조건없이 陰母音 「거사별」로 轉移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고 「거사별」이 다시 「금사별」로 轉移하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지로 다음과 같은 예로 보아서 「고사」(古沙)라는 地名이 「금사」(金沙)로 轉移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燕岐에 「고소재」가 있고 「고소재고개」가 있고 「고소마루」가 있고, 한편으로는 全義面의 碑岩寺入口에 金沙里의 마을이 있다. 또한 南面의 方丑里에 金沙驛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다리를 지금도 金沙橋라고 한다.¹⁶⁾

그러면 燕岐의 경우 金沙里를 古沙里로부터의 轉移로 보고 金沙驛과 金沙橋 또한 각각 古沙驛과 古沙橋로부터의 轉移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결국 燕岐의 경우만이 아니라 全國적으로 意味內容을 달리하고 音韻構造를 달리하는 두 言語는 쉬운대로 <고사 / 고소> <금사/금수>의 범위로 轉移하면서 각각 두가지의 言語로서 獨立性을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古阜에 金沙洞山城은 있어도 古沙比城은 없었고, 扶安에 도룡이피(叢山)는 있어도 豆良伊城(周留城)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原典史料의 中部久麻怒利城이 誤記가 아닌 만치 古沙比城과 豆良伊城(周留城)은 마땅히 中部久麻怒利城 부근의 中路인 燕岐에서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 제1장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결국 古阜에서 定山까지, 定山부터 長項까지, 그리고 定山에서 任存城까지의 사이에 확실히 古沙比城에 비정할 수 있는 山城의 遺蹟이 없는 이상 이 범위내에 豆良伊城(周留城)에 비정할 수 있는 山城의 遺蹟 또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韓山說의 근거가 된 大東輿地圖의 古沙浦(沃溝郡 膾縣面?)는 山城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제외된다.

16)金沙驛에 대하여서는 輿地勝覽 燕岐縣을 參照. 金沙里·金沙橋는 國立地理院 5万分之1지도(全義) 참조.

제 3 장

(1) 白江 즉 白村江은 安城川 河口의 白石浦

羅唐軍은 660년 · 661년 · 663년 초까지는 熊津江(錦江)을 건너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儒城 · 大田 · 鎭岑 등 南部의 諸城은 물론 멀리 南原 · 順天 · 晉州까지 공략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南方已定」일 것이다. 그러나 錦江건너의 西部는 물론 특히 661년 4월이후 中部의 燕岐地區를 공격한 흔적은 없다. 熊津都督府의 唐軍이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錦江을 건너 西部와 연대한 燕岐郡 一帶를 공략할 수 없어서 束手無策으로 劉仁軌는 長期戰으로 끌어 百濟軍의 內部에서 亂이 나기를 기다리며 熊鎭城을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않았다.

663년 6월에 과연 豊王은 百濟의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는 福神을 죽였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熊津都督孫仁師가 새로 군대를 이끌고 熊津都督府로 들어오자 劉仁願 · 劉仁軌 등 唐軍의 기세가 올라가고 7월 17일에서 新羅에서도 文武王이 직접 金庾信 등 28將軍을 이끌고 와서 熊津都督府에서 작전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周留城을 공격하기로 하고 孫仁師 · 劉仁願 · 文武王은 陸軍을 이끌고 熊津을 떠나고 劉仁軌는 따로 杜爽 · 扶余隆과 함께 水軍과 糧船을 이끌고 熊津江에서 白江으로 가서 陸軍과 만나 周留城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熊津都督府에서 작전회의가 있었던 7월 17일 이후 한달만인 8월 17일에 周留城을 포위하였다고 전한다.

白江은 지금의 安城川으로 옛날에는 강물이 깊어서 屯浦 · 成歡까지 배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唐水軍에 의하여 倭國의 水軍이 전멸당하였다고 日本書紀에 전하는 白村江은 安城川 河口에 위치한 白石浦¹⁷⁾이며 白村江으로 表記하고 日本書紀에서 <ハクスキの江>로 읽는 것은 白石浦를 日本語의 음으로 읽고 뜻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ハクスキ>는 白石에 대한 日本人들의 발음이지만 <スキ>는 日本古語에서 <村>이었다. 그리고 <江>는 江 · 浦를 의미하는 말이다.

17) 白石浦는 현재 하나의 農村으로 변하였지만 근래까지도 西海의 漁港으로 交易港으로 흥청대던 곳이다.

이것으로 白石浦가 어째서 日本書紀의 白村江일 수 있는가 대충은 알 수 있겠지만 18) 오늘날에도 白石浦일대를 <흰들>이라 하고 安城川을 <흰들강>이라고 한다지만 白石浦 쪽에서 曲橋川을 따라 豊歲·小井里를 거쳐 全義地區의 北端까지 넓게 벌어진 들판으로 이어졌다.

663년 8월 17일에 白江 즉 白石浦에 도착한 羅唐의 陸軍은 任存城을 중심한 西部의 百濟軍과 中部燕岐의 百濟軍과의 연대를 끊으면서¹⁹⁾ 北에서 南으로 燕岐郡一帶의 諸城을 포위하고 水軍은 水軍대로 17일까지 白江 즉 白石浦의 浦口에 陳列하였다. 이것은 唐水軍에 의한 해상봉쇄를 의미하며 이 해상봉쇄는 여러 가지 뜻²⁰⁾이 있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10일후인 27일에 日本의 軍船중에서 처음에 온 軍船들과 唐의 軍船들이 만나서 싸웠지만 日本의 軍船들이 불리하여 퇴각하였다. 唐의 軍船들은 더욱 굳게 진을 치고 지켰다. 그리고 다음 28일에 다시 싸웠지만 日本의 水軍이 패하여 뱃머리도 돌리지 못한채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그 틈에 豊王은 배를 몰아서 高句麗로 달아났다고 전한다.

그로부터 10일후인 9월 7일에 周留城이 함락하였다고 전하는데 이것은 9월 7일까지 燕岐郡一帶의 山城들이 모두 함락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資治通鑑에는 9월 8일에 함락하였다고 전하였으니 7일 밤에서 8일 아침까지에 함락한 것으로 보인다.

今西龍은 羅唐의 陸軍이 지금의 忠淸·全羅道를 관통하는 大路로 南進하여 古阜·扶安으로 가고 水軍은 熊津都督府를 떠나 熊津江에서 東津江口로 간 것이라고 하였지만²¹⁾ 그렇다면 熊津都督府의 作戰會議이후 장장 한달이라는 세월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全國적으로 白江이라는 이름을 가진 江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日本

18) 白石浦(백석포) → ハクスキのエ (白村江)

白(백) — ハク(白)

石(石, Suk) — スキ, Suki(村)

浦(エ) — エ(江)

19) 이 때의 羅唐軍의 作戰은 西部의 百濟軍과 中部의 百濟軍의 굳은 有機的인 연계를 끊으면서 中部의 百濟軍과 西部의 百濟軍을 各個 殲滅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의 羅唐軍의 모든 作戰이 실제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물론 唐軍이 熊津城을 떠나기까지 錦江以南의 百濟軍의 諸城은 이미 平定되었었다.

20) 이 해상봉쇄로 말미암아 西部와 中部의 연대가 끊기고, 고구려로 부터의 보급과 일본군의 증파가 불가능해진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일본 軍船의 진멸로 인한 周留城에 대한 일본군의 지원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周留城 함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21) 今西龍 「周留城考」(未定稿) 참조. 이 논문은 그의 「百濟史研究」에 수록됨

사람들이 (ハクスキのエ)라고 읽을 수 있는 白江은 牙山灣의 安城川 河口에 위치한 <白石浦>뿐일 것이다. 日本人은 <石>을 <セキ> 로 읽지만 <석>을 日本人이 발음하면 <스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키>는 日本語의 古語로 <村>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白石浦가 日本書紀에 白村江으로 표기되어 <ハクスキのエ>로 읽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2) 白村江海戰과 周留城 總攻擊

앞서 밝힌 바와 같이 旧唐書에 「自熊津城往白江以會陸軍, 同趣周留城」이라고 하였으니 劉仁軌 등이 船團을 이끌고 熊津江에서 白江으로 간 것은 陸軍을 만나 함께 周留城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劉仁軌 등은 어디에서 陸軍을 만났겠는가? 물론 白江으로 가서 白江之口 즉 安城川河口의 白江浦, 日本書紀의 白村江에서 陸軍을 만나 함께 中部久麻怒利城에 소속한 燕岐의 都留岐城=周留城으로 간 것이다.

물론 663년 당시 安城川河口의 白江浦일대는 그 상태가 오늘날과는 사뭇 달라서 일대에 白沙도 있었고 古城里에 小城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劉仁軌 등의 船團이 도착하기 전에 도착한 羅唐의 陸軍은 그 일대를 지키고 있었던 百濟軍을 소탕함으로써 劉仁軌 등은 안전하게 白石浦에 上陸하여 陸軍과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白石浦일대를 橋頭堡로 확보한 羅唐軍은 이것을 基地로 하여 압도적인 大軍으로 周留城으로 進擊하여 배후로부터 燕岐일대의 大城인 古沙比城과 李城 그리고 金伊城 등 몇 개의 大城을 分兵하여 포위 공격하였기 때문에 南쪽에 있었던 小城들을 감히 지원할 염두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로 8월 17일부터의 일이었고 倭의 水軍으로 白村江에 처음으로 도착한 것은 8월 27일이었으니 이때는 羅唐軍이 周城攻擊을 개시한지 10일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倭軍으로서의 사태가 몹시 급박했던 것이다. 倭軍으로서의 州柔城 즉 王城이 함락당하기 전에 唐의 水軍을 격파하고 白石浦로 上陸하여 羅唐軍의 橋頭堡를 점령하고 羅唐軍의 뒤를 쫓아 州柔城으로 진격 州柔城의 百濟軍을 지원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400척의 倭의 水軍이 170척의 唐의 水軍을 격파하고 그대로 白石浦로 上

陸하여 周留城으로 갔다면 戰勢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周留城內의 濟倭軍과 後來의 支援軍이 合勢하여 쉽게 羅唐軍을 섬멸할 수 있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州柔城이 함락한 뒤라면 倭의 水軍이 唐의 水軍을 이겨봐도 이긴 뜻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白江之口의 海戰 즉 白村江의 海戰은 百濟와 新羅 그리고 高句麗의 運命까지를 左右한 決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倭와 唐의 運命까지를 크게 바꾸어 놓은 決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唐은 이때의 勝利로 말미암아 百濟를 완전히 滅亡시킴으로서 이어서 高句麗까지를 滅亡시킬 수 있었고 倭는 韓半島에서 물러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海戰이 있었던 8월 27일과 28일 이후 周留城은 10일간을 버티다가 9월 7일에 함락하였으니 이 海戰에서 승리하였더라면 충분한 周留城은 함락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羅唐軍은 周留城下에서 섬멸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상황을 日本書紀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8월 17일 羅唐軍이 州柔에 이르러 王城을 포위하고 唐將은 170척의 軍船을 이끌고 白村江에 陣烈하였다(賊將至於州柔 繞其王城 大唐軍將 率船 170艘 陳列白村江).

이때의 州柔는 「地名」으로서 구체적으로 燕岐지구를 의미한 것이며 州柔 즉 燕岐에 王城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白村江이 新旧唐書의 白江之口임은 물론이다.

8월 27일 일본의 軍船으로 먼저 도착한 軍船들이 唐의 軍船들과 싸웠지만 일본의 軍船들이 不利해서 물러났다(日本船師初至者 與大唐船師合船 日本國不利而退 大唐堅陳而守).

8월 28일 일본의 장수들과 百濟王(豊)이 氣象도 보지 않고 서루 말하기를 우리들이 앞을 다투어 돌진하면 唐의 水軍은 할 수 없이 퇴각할 것이라고 하면서 戰列도 가다듬지 않고 그대로 唐의 水軍을 향하여 돌진하자 唐의 水軍은 두편으로 갈라서 左右에서 포위하고 공격하므로 일본의 水軍은 일시에 패하여 많은 무리가 물에 빠지고 軍船들은 뱃머리도 돌릴 수 없었다……(日本諸將與百濟王 不觀氣象而相謂曰 我等爭先 彼應自退 更率日本亂伍中軍之卒 推打大唐軍 大唐便自左右 夾船繞戰 須臾之際 官軍敗績 赴水溺死者衆 艦舳不得廻旋……)

8월 28일에 「不觀氣象」이라고 한 것은 氣象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氣象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급하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出擊한 것을 의미하며 唐의 水軍은 白石浦의 좁은 목에 집결하여 굳게 陣을 치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倭의 水軍을 좁은 목으로 誘引 左右에서 협공하여 마침내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艦舳不得廻旋」이 좁은 목에서의 海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28일이후 10일만인 9월 7일에 周留城이 함락하였으니 倭의 水軍은 하루 이틀 쯤 氣象을 보아가면서 陳列을 가다듬어 唐의 水軍을 공격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너무 서둘다가 크게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인들이 곧잘 쓰고 있는 「急하거든 돌아가라」는 속담도 그때에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로부터 10일후인 9월 7일에 周留城은 함락하고 周留城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周留城을 함락시킨 羅唐軍은 점령한 燕岐일대의 古沙比城 · 李城 · 金伊城 그리고 唐山城 등을 오늘날에도 보듯이 철저적으로 파괴하고는 다시 軍列을 가다듬어 10월에는 西部로 進擊하여 任存城攻擊을 개시하였다. 물론 이때의 羅唐軍의 駐軍之地가 任存城下의 大興 · 光時 · 新陽일대였다.

이때까지는 熊津江南에 있었던 鎭峇 · 大田 · 儒城方面의 百濟城과 멀리 晋州 · 順天 · 南原 · 恩津의 百濟城이 함락하고 周留城까지 함락하여 北에 멀리 任存城 하나가 마지막 막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와같은 大勢를 표현한 것이 文武王報書에 보이는 「南方已定 廻軍北伐 任存一城 執迷不降」의 글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燕岐가 분명히 任存城의 東으로 北이 아닌 점만은 확실하니 燕岐에서 정확히 任存城이 북이다 아니다까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南方에 있었던 百濟의 諸城이 모두 함락 평정되었을 뿐 아니라 「南方已定」의 「已」가 「과거」일반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수하게 「직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東方已定 廻軍西伐 任存一城 執迷不降」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주로 新羅軍 단독의 힘으로 평정한 熊津城南의 儒城 · 大田 · 鎭峇 방면의 많은 百濟城과 恩津 · 南原 · 順天 · 晋州 방면의 많은 百濟城은 제외되고 주로 唐의 水陸軍의 힘으로 평정된 周留城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周留城의 最後와 ㄹ禮城의 위치

日本書紀天智紀에는 663년 9월 7일 밤부터 8일 아침까지에 함락한 것으로 보이는 周留城에서 살아남아 日本으로 망명한 사람들의 수기를 대체로 원문 그대로를 전한 부분이 있다(史料E).

周留城이 무너졌으니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아아 百濟의 이름은 드디어 오늘로서 다 하였으니 내 고향땅을 어찌 다시 밟을 수 있으리요. 오직 ㄹ禮城(테레사시)으로 나아가 日本軍將들과 만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서로 의논함이 좋을 것이다.

이와같이 탄식한 그들은 枕服岐城(진보기사시)에 머물고 있는 妻子들에게 百濟를 떠날 마음임을 알리고 11일에 牟ㄹ(므테)를 떠나 13일에 ㄹ禮城(테레사시)에 당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ㄹ禮城에서 배를 타고 日本으로 망명하였다는 것인데 西海바다의 浦口로 ㄹ禮城를 찾으려면 百濟時代의 寺浦城이며 統一時代의 藍浦城일 것이다.

西林郡, 本百濟舌林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藍浦縣, 本百濟寺浦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 地理三)

160년 전에 간행된 「全城誌」(全義邑誌)에 <保寧水營200里>라고 하였다. 따라서 全義부터 藍浦까지는 40리가 먼 240리쯤 될 것이니 9월 8일부터 13일까지의 6일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이다.

ㄹ禮城(te-le-zasi) / 寺城(tel-zas)

寺(텔→질) 寺(텔→テラ<日本語>)

城(갓 zas→サシzasi)

佛敎가 百濟에서 日本으로 전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佛敎와 함께 <텔>이라는 말이 日本으로 전해져서 <テラ>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 그들의 妻子가 머물고 있었다는 枕服岐城(진보기사시)는 洪城郡 廣州의 烏首山(해발790미터)의 北쪽 기슭에 위치한 <진방이재/참방이재(俗稱)>일 것이다. 진방이갓(眞方城)을 日本人이 발음하면 (진보기사시)가 될 것이다. 22)

22) 眞方城(진방이갓, Chin-bang-i-ZAS) / chin-bogi-zasi(枕服岐城)

그리고 11일에 牟攄(므테)를 떠났다고 하는데 牟攄는 烏首山너머 南쪽 靑陽郡 化城面 花田里에서 保寧郡 靑羅面 長峴리로 넘는 고개마루에 위치한 <스므테/므테>마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周留城은 西海의 浦口에서 30리도 떨어지지 않은 韓山 · 洪城 · 扶安 등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6~7일을 걸러서 가야할 240리쯤 떨어진 內陸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물며 中部久麻怒利城의 達率이었던 余自進이 인솔하여 日本으로 망명한 일행이 아니었던가? 中部의 燕岐부터 保寧의 藍浦城까지 정확히 240리 길을 6일만에 간 것이다. 일행중에는 물론 부상자도 있고 병자도 있었을 것이다. 길은 車嶺의 본맥을 따라 聖住山 앞바다로 가는 길이었으니 하루에 40리 이상은 가지 못하였을 것이다.

(4) 寶城의 兆陽城과 保寧의 藍浦城

全榮來는 663년 9월 7일에 함락한 周留城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배타고 일본으로 건너가기까지의 路程에 대하여 一見 대단히 정밀하게 보이는 다음과 같은 「州柔城百濟遺民亡命路要圖」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였다.

첫째 百濟軍의 妻子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枕服岐城은 필연적으로 光州와 寶城線의 西쪽 즉 全羅右道에 比定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663년 2월까지의 南原-順天-晉州의 諸城이 新羅軍의 支配下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康津에 比定하였다.

全榮來가 주장한대로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에 전하고 있으니 그대로 믿어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663년 9월 7일에 함락한 周留城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찌서 安全한 全羅右道の 康津으로 가지않고 그해 2월이래로 이미 新羅軍의 支配下에 들어갔다는 光州-寶城線의 東쪽 全羅左道를 가로질러 虎口の 南平으로 가고 兆陽으로 갔겠는가? 23)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면 세상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지를 았았을 것이다. 더구나 兆陽부터 일본까지의 船路가 康津부터 日本까지의 船路보다 가깝지도 았을 뿐 아니라 康津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妻子들이 머물고 있었다고 하면서 말이다.

23) 南平은 光州 南 30리에 위치하고 兆陽은 寶城의 東 30리에 위치한다.

이 문제는 적잖이 중요한만치 全榮來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新羅軍은 이미 文武王3년에 沙平·居列·居勿 등 南畔四洲를 병합한 후이므로 光州·寶城線 적어도 全羅左道 一帶는 이미 新羅軍의 支配下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家族을 避難시킨 枕服岐城은 牟弓(南平)과 弓禮(兆陽)를 잇는 線의 以西에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周留城에서 살아남은 百濟遺民들의 亡命路 또한 牟弓(南平)와 弓禮(兆陽)를 잇는 線의 以西에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 牟弓(南平)과 弓禮(兆陽)를 잇는 線의 東쪽이 妻子들에게 위험했다면 그 妻子들의 男便들과 父兄들에게도 역시 위험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全榮來가 왜 이와같은 모순된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康津方面 즉 全羅右道 일대에 牟弓와 弓禮城에 比定할만한 마땅한 地名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安全한 康津쪽으로 갔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冬老-多禮- 弓禮> <未冬-未多-牟弓> 등의 地名比定만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南平과 兆陽을 주장하였지만 그쪽은 그로 말하듯이 그해 2월이래로 이미 新羅軍의 支配下에 있었으니 落城의 敗殘兵들이 현실적으로 그쪽으로 가기란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절대로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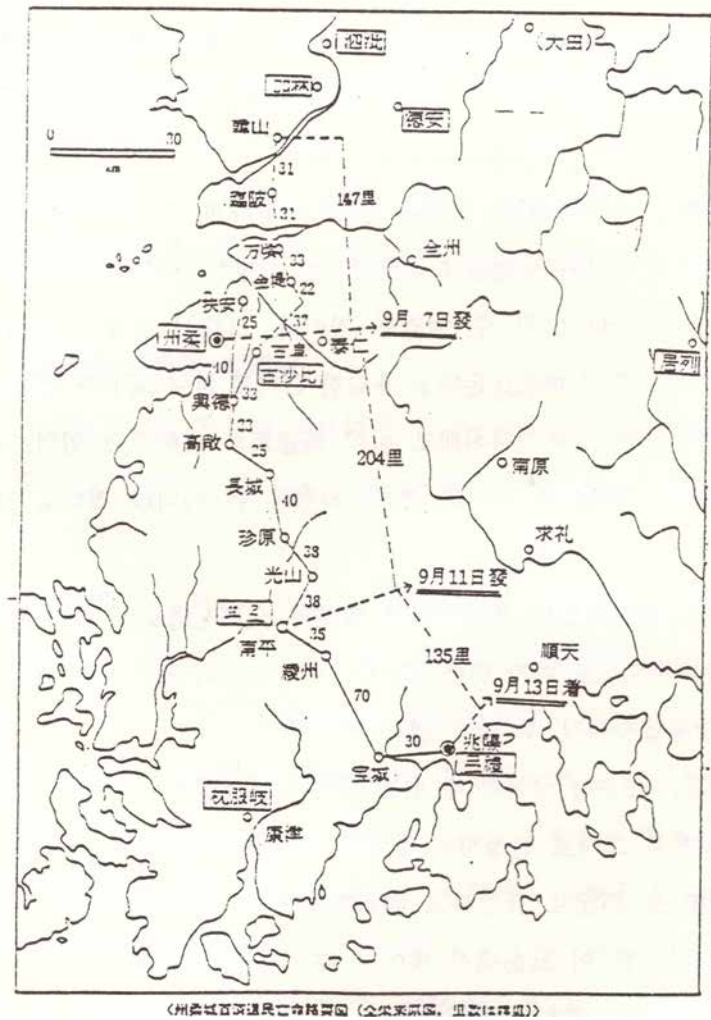
결국 康津쪽 全羅右道로도 불가능하고 寶城쪽 全羅左道로도 불가능하니 康津쪽으로 가지 못하고 寶城쪽으로도 가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地名比定부터가 그가 自負하면 할수록 더욱 알송달송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史料자체에 모순이 없는 한 史料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선입견을 가지고 근거없이 原典史料의 「中部久麻怒利城」을 誤記로 규정하고 周留城扶安設를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며 周留城扶安設를 주장하는 한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中部久麻怒利城. 或本云 都留岐留山」 또는 「中部久麻怒利城. 或本云 都留岐城」을 그대로 인정하여 中部久麻怒利城에 소속된 都留岐城=周留城으로 해석하고 中部久麻怒利城의 소속인 周留城燕岐說을 인정함으로써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落城의 敗殘兵의 신세로 扶安에서 虎口의 南平를 거쳐 멀리 兆陽으로 350리를 가게하는 대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中路 즉 熊津都城부근의 燕岐에서 車嶺의

本脈을 따라 聖住山과 烏首山사이 지금의 靑陽郡과 保寧郡의 경계인<스므테/므테>를 거쳐서 聖住山の 앞바다 寺浦城의 <델재> 지금의 藍浦城으로 나가 배를 구해타고 일본으로 가게하면 될 것이다. 이쪽은 240리의 거리로 6일간에 충분히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南平-寶城과는 달라서 新羅軍의 지배와는 관계가 없었으니 말이다.



또한 다음의 「거리표」에서 보듯이 燕岐부터 大川까지는 92km 즉 230리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燕岐부터 藍浦까지 240리라는 것은 맞는 리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洪城부터 大川까지는 34km이니 長谷面부터 大川까지는 24km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洪州設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제 4 장

(1) 燕岐地區의 戰略的 價値

661년 2월 당시 新羅軍이 燕岐地區를 점령하면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었을 것이다.

- (ㄱ) 熊津城에 포위된 唐軍을 구원할 수 있었다.
- (ㄴ) 政治的·軍事的인 要衝인 熊津城을 百濟軍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 (ㄷ) 熊津都督府의 唐軍에게 高句麗南界로 進擊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
- (ㄹ) 報恩의 三年山城부터 비교적 평탄한 길을 따라 熊津城까지 物資의 수송로를 열 수 있을 뿐 아니라 芙蓉江부터 熊津城까지 錦江의 船路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 대신 百濟軍이 燕岐地區를 確保하고 있는 한 熊津都督府의 唐軍은 항상 불안할 뿐 아니라 陸路로 가깝게 北上하여 高句麗의 南界를 칠 수 없었고 新羅로서는 熊津城에 物資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日本書紀 天智원년조에 「일본의 軍將이 疎留城(周留城)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熊津都督府의 唐軍은 高句麗의 南界를 공략할 수 없었고 新羅는 西쪽인 熊津城에 物資를 수송할 수 없었다²⁴⁾」고 전하였는데 이 記事는 燕岐地區를 놓고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 新羅太宗 金春秋는 熊津城에 포위된 唐軍을 구원한다는 名分과 함께 燕岐地區의 점령 확보가 新羅에게 이만한 利點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全軍을 동원하여 燕岐地區로 출격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이 新羅로서 燕岐地區의 攻略이 쉽기도 생각되었을 것이다.

(2) 三年山城부터 燕岐까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百濟時代의 一牟山郡이며 統一時代의 燕山郡의 燕岐-文義-

24) 元年三月 是日唐人 新羅人 伐高麗. 高麗乞救國家 仍遣軍將, 據疏留城 由是唐人 不得略其南界. 新羅不護 踰其西壘

懷人을 이어 報恩에서 三年山城과 대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新羅不敗의 全哨基地인 三年山城부터 燕岐地區까지 거리는 비교적 가깝고 (100리) 길은 비교적 평탄하고, 錦江 東쪽으로 난 길이기 때문에 錦江 西쪽의 沃川 · 大田 · 儒城方面의 百濟軍의 공격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三年山城부터 燕岐까지 오는데 大軍의 出擊에 장애가 되는 錦江을 건널 필요가 없고 美湖川 下流의 얇은 물만 건너면 된다는 점이다.

<史料A>에 新羅軍의 先鋒部隊가 3월 5일에 豆良伊城南에 도착하여 陣地를 살피다가 豆良伊城의 百濟軍에게 不意습격을 당하여 大驚失色하고 달아났다고 전하는데 그 先鋒部隊는 필경 三年山城부터 이 길을 따라 豆良伊城南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文義에서 芙江을 거쳐서 燕岐郡 東面으로 난 10리길을 가면 美湖川 下流에 도착하고 美湖川 下流의 얇은 물을 건너면 그 앞에 燕岐의 唐山城이 나타나는데 이 唐山城이 앞서 언급한 바 두령이재 즉 豆良伊城이며 豆良伊城에서 美湖川 下流쪽이 豆良伊城南이 된다.

歷史는 되풀이 한다는 말이 있다. 高麗忠烈王 17년에 咸鏡道쪽으로 침입하여 江原道와 京畿道를 휩쓸고 내려온 蒙古의 한갈래인 哈丹賊²⁵⁾을 高麗軍이 天然의 要塞이며 人工의 要塞이기도 한 燕岐로 誘引하여 燕岐의 正左山에서 일시에 공격하여 섬멸한 경우와 같이 그리고 錦江쪽으로 밀어부쳐서 많은 人馬를 錦江에 水漿한 경우와 같이 661년 2월 당시에 三年山城에서 燕岐쪽으로 進擊하는 新羅軍의 先鋒部隊에 대하여 百濟軍이 차라리 길을 내주어 燕岐로 誘引한 것으로 보인다. 그 先鋒部隊는 豆良伊城南에 도착하기까지 도중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놓고 豆良伊城南으로 接近하여 陣地를 살피다가 百濟軍에게 不意襲擊당하여 大驚失色 敗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古沙比城과 葛嶺道

新羅軍으로서는 熊津城에 가깝게 燕岐地區의 앞줄에 위치하여 燕岐地區의 山城郡과 錦江西쪽 儒城地區의 山城群 그리고 錦江東쪽의 文義 · 芙江地區의 山城群을 잇는 고리가 되어 직접 熊津城을 포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燕岐의 唐山城 즉 豆良伊城의 攻略을 新羅軍에게 焦眉의 사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豆良伊城의 攻略은 그 背後의 여러 山

25) 哈丹賊의 侵入과 燕岐大捷에 대해서는 「高麗史」 「高麗史節要」 忠烈王 17년조를 參照

城들 그중에서도 특히 燕岐地區의 主城 즉 母城일 뿐 아니라 中部의 主城 즉 母城인 古沙比城의 百濟軍의 來襲에 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史料A] 에 전하듯이 3월 12일에 도착한 新羅의 大軍이 古沙比城外에 주둔하고 豆良伊城으로 進攻하였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古沙比城外란 고소재밖인 全東面 蘆長里의 갈거리이다.

이것을 오늘날 알기쉽게 설명하면 고소재밖인 全長面 蘆場里의 갈거리에 新羅의 大軍이 주둔하여 고소재의 百濟軍의 來襲을 막으면서 한편으로 燕岐唐山城으로 進攻한 것이니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한편 고소재의 百濟軍의 來襲에 대하여 방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燕岐唐山城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이 新羅의 大軍은 葛嶺導로부터 遁還하였다고 전하였는데 「갈거리」를 漢文으로 표기하면 타당성 없는 「葛道」가 아닌 「葛嶺導」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自葛嶺導遁還」의 「自」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葛嶺導로부터」라는 뜻이기 때문이며 「葛嶺道를 따라서」(從葛嶺都遁還)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古沙比城外의 葛嶺道에 주둔한 新羅大軍이었기 때문에 달아날 때도 葛嶺道로부터 달아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4) 新羅軍의 大敗와 遁還路

앞 서 燕岐地區는 錦江을 끼고 熊津城을 東北方에서 감싸주는 강력한 戰略基地라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燕岐地區가 熊津城을 東北方에서 포위하고 압박을 가하는 戰略基地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이 戰略基地에 들어선 新羅의 大軍은 이리떼에게 포위된 뿔돼지같이 사방 팔방의 山城에서 달려드는 百濟軍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다 결국 총공격앞에 무참히 참패하고 달아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高麗忠烈王 17년에 燕岐에 侵入하여(실지는 燕岐로 誘引되어) 正左山에 주둔한 哈丹賊에 대하여 高麗軍이 速戰速決하는 대신 放心할 때를 기다려 急襲하여 일시에 錦江쪽으로 밀어부쳐 섬멸한 경우와 같이²⁶⁾ 661년 3월에 燕岐에 侵入하여 古沙比城外에 주둔한 新羅의 大軍에 대하여 百濟軍은 長期戰으로 끌다가 急襲

26) 「追之公州河 伏尸三十余里 溺死者甚多」(「高麗史節要」忠烈王 17년) 參照

하여 36일만에 勝敗를 낸 것이다. 古沙比城의 水口쪽인 全東面 美谷리에 옛부터 激戰場으로 전하는 「피수골」이 있고 갈거리쪽에 또한 예부터 激戰場으로 전하는 「붉은덕」이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때의 激戰地는 아닐까 추측이 가는 것이다.

[史料A]에서는 新羅軍이 돌아갔다 즉 「班師」하였다고 전하였지만 [史料C]에서는 「遁還」하였다고 전하였다. 新羅의 立場과 百濟의 立場의 차이겠지만 [史料B]에서 「大損兵馬 失利而歸」라고 하였으니 大敗 敗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敗走하는 新羅의 敗軍에 대하여 百濟軍이 일제이 三年三城으로 통하는 루트를 차단하고 南쪽만을 터놓으므로 그 退路는 자연이 4월의 짙레꽃가뭇의 錦江을 끼고 燕岐-大平里-儒城을 잇는 루트일 수 밖에 없고 儒城에서 東쪽으로의 脫出口를 찾지 못하면 全羅道 方面으로까지 쫓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儒城東쪽이 鷄足山·食藏山·寶文山 등에 構築된 山城軍으로 막혔으니 儒城에서 東쪽으로 脫出口를 찾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史料A]에 전하듯이 賓骨壤(泰仁)에서 비로소 東쪽으로 退路를 틀자 後尾가 百濟軍의 猛攻을 받았고 新羅의 國境地帶인 角山에 이르자 정면에서 退路를 막는 百濟軍을 격퇴하여 그 城塞를 부수고 길을 터 가가스로 居昌·高靈을 거쳐 慶州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新羅의 敗軍이 위험을 무릅쓰고 貧骨壤에서 만일 東쪽으로 退路를 틀지 않으면 그 이남에서는 慶州로 통한 마땅한 길이 없을 뿐 아니라 慶州까지의 거리가 일거에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慶州로 돌아가지 못한채 羅州·康津方面에서 自盡自滅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武王 6년 2월조에 百濟에서 「角山城을 쌓았다」고 전하듯이 角山은 全羅道에서 慶尙道로 통하는 通路에 위치한 중요한 요충으로 보이는만치 新羅의 敗軍이 賓骨壤에서 東쪽으로 退路를 튼 것은 角山으로 통하는 이 通路를 타고 결사적으로 慶尙道로 빠져나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한편 燕岐에서 大敗한 新羅軍이 賓骨壤까지 쫓겨내려 갔다면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 高麗忠烈王 17년에 燕岐의 正左山에서 大敗한 哈丹賊의 敗軍이 平壤까지 달아나 平壤에서 잡혀서 全滅한 예도 있으니 燕岐에서 大敗한 新羅의 敗軍이 賓骨壤까지 쫓겨내려 갔다고 해서 전연 생각할 수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燕岐부터 平壤까지의 거리는

燕岐부터 賓骨壤까지의 3배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5) 中部와 西部의 連帶에 대하여

熊津王都時代に 全義·燕岐가 戰略基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北에서 오는 高句麗의 侵入으로부터 그리고 東쪽에서 오는 新羅의 侵入으로부터 熊津王都를 守護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泗泚王都時代가 되면서는 稷山-禮山-大興-靑陽-扶餘를 잇는 루트를 따라 많은 山城들을 쌓아야만 하였다. 任存城은 물론 이 루트와 관계가 있으며 이 루트에 있는 많은 山城들을 子城으로 거느린 主城 즉 母城으로서의 任存城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全義東8리에 우뚝한 古沙比城이 中部의 主城으로 母城이듯이 任存城은 西部의 主城으로 母城이며 그 규모도 周3200미터 이상으로 거의 비슷한 점이 또한 흥미있는 일이다.

熊津王都時代 그리고 泗泚王都時代에서도 任存城을 母城으로 한 西部의 百濟軍과 古沙比城을 母城으로 한 中部의 百濟軍은 같은 百濟軍으로 굳게 連帶하였고 660년 7월에 泗泚城이 함락하고 이어서 熊津城이 함락한 이후에도 西部와 中部의 連帶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것이 百濟末의 二大 抗戰基地로서 西部의 任存城과 中部의 周留城일 것이다.

661년 2월에 있었던 新羅軍의 周留城作戰은 물론 熊津城에 포위된 劉仁軌 등을 구원한다는 名分과 함께 熊津城이 百濟軍의 手中에 들어가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 新羅軍의 이 作戰은 唐軍이 熊津城에 포위된 기회를 이용하여 新羅에서 唐에 앞서 戰略基地로서 周留城 즉 燕岐地區를 장악함으로써 西部의 百濟軍을 고립시키고 아울러 앞으로 熊津都督府의 唐軍을 마음대로 견제할 수 있는 立場에 서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 作戰은 三年三城을 가지고 있었던 新羅로서 충분히 가능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對岸에 百濟軍이 지키고 있는 錦江을 건널 필요가 없으니 더욱 쉽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新羅의 이 作戰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燕岐地區가 天然의 要塞地이며 人工의 要塞地였기 때문에 失敗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鬼室福信의 西部軍의 지원에 의하여 완전히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史料C〉의 「福信激擊敗之」가 그것일 것이다.

또한 新羅軍의 慘敗로 말미암아 南方의 諸城도 일시에 羅唐軍에 대항하여 일어서게

되었는데 이때의 항쟁의 지도권은 물론 福信이 장악하고 있었다. [史料B]의 「大損兵馬 失利而歸 南方諸城 一時總叛 並屬福信」이 이것일 것이다.

熊津都督府의 唐軍으로부터 錦江건너에 가장 먼 西部의 任存城이 가장 안전하였고 다음이 中部의 周留城 그리고 가장 가까우며 錦江안에 있었던 南部가 가장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南部의 百濟軍이 가장 먼저 平定되고 다음이 中部의 周留城이며 마지막으로 總攻擊을 받은 것이 任存城이었다.

西部의 任存城이 熊津都督府로부터 가장 멀고 安全하였기 때문에 百濟軍의 妻子들이 枕腹岐城 즉 烏首山의 北쪽 기슭에 위치한 眞方城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眞方城의 뒤에는 烏首山이 솟고 右側으로는 任存城이 있는 鳳首山 그리고 左側에는 洪城의 日月城이 있는 月山이 솟았기 때문에 安全하였을 것이다.

이와같이 西部가 비교적 安全하였기 때문에 福信은 自在로 西部軍을 빼어서 中部의 百濟軍을 지원해 줄 수 있었고 南部의 百濟軍을 지원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福信자신이 탁월한 軍略家였다는 점과 함께 抗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福信이 道琛을 죽이고 豊王은 福信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는 亡國의 주도권싸움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한편으로는 武王이래로 百濟에서는 王權을 둘러싸고 貴族간에 깊이 패인 갈등의 골이 있었고 그 갈등의 골이 최후까지 메꾸어지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때에 표면화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稿를 달리하여 他日에 期하고자 한다.

(6) 定山の 豆陵伊城에 대하여

이제까지 검토한 바로 알 수 있듯이 豆陵伊城은 豆良伊城(周留城)에 대한 別記로서 燕岐의 本百濟時代의 古地名 豆仍只縣의 豆仍只(두렁이재)와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三國史記 地理四의 註記에는 「豆陵伊城」이 「연기」(燕岐)가 아닌 「열기」(悅己)였다고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悅己縣 一云豆陵尹城. 一云豆串城. 一云 尹城

한편 三國史記 地理三 熊州의 本文에는 悅己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扶餘郡 本百濟所夫里郡……. 悅城縣. 本百濟悅己縣. 景德王改名. 今定山.

定山의 本百濟時代의 古地名이 悅己縣이며 統一時代의 地名이 悅城縣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本百濟時代의 悅己縣의 悅己와 豆陵伊城과 相通하는 점이 있는 것일까?

悅己(열재)-悅城(열재) 己=城

豆陵伊城(두릉이재)

이와같이 悅己縣의 悅己(열재)와 豆陵伊城(두릉이재)는 음으로나 뜻으로나 서로 相通하는 것을 전연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地理三 本文에서 「燕岐縣 本百濟豆仍只縣」이라고 하였으니 燕岐의 本百濟時代의 地名인 豆仍只縣의 豆仍只와 豆陵伊城은 다음과 같이 相通하는 것이다.

豆仍只-豆仍伊城(두잉이재) 只=城

豆陵伊城(두릉이재)

결국 이와같은 점으로 보아서 「悅己縣 一云豆陵尹城」은 마땅히 「豆仍只縣 一云豆陵尹城」의 錯誤로 보아야 하겠는데 그 錯誤의 原因은 「열기」(悅己)와 「연기」(燕岐)의 유사한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地理四의 註記는 地理三의 本文과 달라서 다음과 같이 거의가 錯誤인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大木岳郡 其買縣 一云林川 仇知縣>의 부분에서 (其買縣 一云林川)은 완전한 錯誤이다. 其買縣은 甘買縣으로 天安郡 豊歲이기 때문이며 林川은 다음의 <加林郡 馬山縣 大山縣>의 加林郡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와같은 錯誤를 범하였느냐하면 大木岳郡이 木川이었기 때문에 이 木川을 林川으로 잘못 알고 영똥하게 大木岳郡의 屬縣인 其買縣(甘買縣)에 林川을 붙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大木岳郡 一云木川 甘買縣 仇知縣>으로 정정하여야 하고 (加林郡 馬山縣 大山縣)은 (加林郡 一云林川 馬山縣 大山縣)으로 고쳐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湯井郡 牙述縣 屈旨縣 一云屈直>의 부분에 보이는 「屈旨縣」은 地理三의 本文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며 地理三의 本文에 보이는 것은 「屈直縣」이다. 따라서 이것도 「屈直縣 一云屈旨縣」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完山 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라고 註記하였지만 完山은 全羅北道 全州이며 比斯伐=比自火은 慶尙南道 昌寧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착오이다.

이와같이 地理三의 本文과 달라서 이 註記는 거의가 완전한 착오이니 이 註記는 12세기 중엽에 三國史記를 편찬할 때 붙인 조잡한 註記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悅己縣 一云豆陵尹城>이라는 것도 「其買縣 一云林川」 또는 「完山 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 과 같은 粗雜한 註記의 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定山에는 現地住民들이 「두능성」 이라고 부르는 土城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능성」은 백제시대부터 「두능성」으로 불려온 「두능성」이 아니라 도리어 三國史記의 註記를 起源으로 한 後世의 呼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白谷里土城이 위치하고 있는 해발80m의 野山을 現地 住民들은 「두능성」이라고 부르며, 이곳의 南과 西로는 冲積平野가 전개되어 있다.

城의 平面은 東西長軸의 馬鞍形으로서 東西의 길이가 약130m내외, 南北의 幅의 넓은 곳에서는 70m~80m, 좁은 곳에서는 30m~40m이다. 城은 해발80m내외의 곳에 거의 평탄한 지형을 이용하여 削土에 의한 土築으로 築造되어 있으며 전체 城周는 380m 정도이다.²⁷⁾

물론 定山의 白谷里土城이 豆陵伊城이라면 定山일대에 확실히 古沙比城으로 비정할 수 있는 山城의 遺蹟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新羅 全軍의 36일간에 걸친 總攻擊에도 견딜만한 堅固한 大城이어야 하는 것인데 定山에 古沙比城으로 비정할 수 있는 山城의 遺蹟이 없을 뿐 아니라 그와같이 堅固한 大城 또한 있지를 않은 것이다. 그리고 近者에 七甲山頂上에서 大城의 遺蹟을 찾았지만 位置로 보나 築造形態로 보나 築造年代로 보나 實戰用的 堅固한 大城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요컨대 「悅己縣 一云豆陵尹城」을 「豆仍只縣 一云豆陵尹城」으로 고쳐 볼 때 實證的으로 燕岐에서 豆陵尹城의 遺蹟도 찾을 수 있고 古沙比城의 遺蹟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山城들은 모두가 實戰用的 堅固한 大城임은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다음 定山은 百濟末인 泗泚王都時代に 中部에 소속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西部

27) 「文化遺蹟總覽」忠清南道刊 205P

에 소속된 것일까? 西部를 任存城에 소속한 禮山에서 靑陽까지의 범위였다고 한다면 定山은 西部에 소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中部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石山縣 즉 百濟時代의 珍惡山縣과 함께 王畿에 소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三國史記 地理三의 本文에 「扶餘郡. 本百濟所夫里郡. …… 領縣二. 石山縣. 本百濟珍惡山縣. 景德王改名. 今石城縣. 悅城縣. 本百濟悅己縣. 景德王改名. 今定山縣」이라고 전하듯이, 定山은 本百濟時代의 所夫里郡의 領縣이라고 하였으니 당연히 王都 所夫리에 소속된 王畿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百濟末에 定山은 西部의 소속도 아니고 中部의 소속도 아닌 王畿였으니 王畿에 鷄鳳山城과 文城里山城 말고 豆陵伊城이 있고 古沙比城이 있었을 까닭이 만무한 것이다.

제 5 장

(1) 周留城扶安設에 대하여

戰略基地는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이다. 戰略基地를 건설하려면 많은 물자와 人力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今西龍과 그를 이은 全榮來는 扶安에 一大戰略基地가 있었다고 假定하고 661년 2월의 新羅軍의 枹峴이 中部熊津城으로의 枹峴이 아니라 扶安으로의 枹峴이었다고 대체로 다음과 같이 논하였지만 과연 그럴까?

그 당시 南에 居列城(晉州) · 居勿城(南原) · 北에 沈峴城(紀城) · 西北에 任存城이 있었다.

百濟의 府城(熊津城)에 劉仁軌 등이 포위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中路(古阜附近)로 나와 百濟인의 근거였던 居留(扶安의 位金岩山城)을 공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退路로 보아서도 그 외에 길이 없었을 것²⁸⁾이다.

이것으로 보아 今西龍이 661년 2월에 新羅에서 大軍을 扶安으로 枹峴한 것으로 假定한 이유가 첫째로 그 당시 居列城 · 居勿城 · 沈峴城 · 任存城 등을 百濟軍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熊津城으로 가기 어려웠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新羅軍은 大軍인만치 慶州를 출발하여 尙州를 거쳐 報恩의 三年山城으로 나와 錦江 東쪽으로 통한 懷人-文義를 거쳐 中路 燕岐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니 처음부터 慶州에서 三年山城까지의 전통적인 루트를 생각하는 대신 이 루트와 하등 관계가 없는 居列城 · 居勿城 등의 百濟軍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째로 그 당시 扶安이 百濟人의 근거였기 때문에 熊津城에 포위된 劉仁軌 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扶安을 공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지만 그 假定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즉 溫祚王時代부터 義慈王時代까지 한사람의 新羅兵 한사람의 高句麗兵도 구경하지 못한 扶安의 別天地에 661년 당시 羅 · 濟 · 唐 · 倭 · 4國軍에 관계된 戰況全般

28) 上記 論文 「周留城考」 參照

을 左右할 百濟人의 근거-百濟軍의 一大戰略基地가 있었다는 것은 飛躍이어서 믿기지 않을 뿐 아니라 더구나 新羅軍이 그 戰略基地를 공격하면 熊津城에 포위된 劉仁軌 등이 구원될 수 있었다는 것은 飛躍의 飛躍이어서 더욱 믿기지 않는 것이다.

물론 西海岸일대에서 특별히 古阜와 扶安에 斗順山城과 位金岩山城 등 눈에 띄는 大城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大城들은 百濟時代에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은 新羅軍의 侵入을 막고 高句麗軍의 侵入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與地勝覽에 高麗太祖의 시대²⁹⁾에 豆順山城이 築造된 것이라고 전하듯이 位金岩山城 또한 遺物의 出土로 보아서 甄萱의 勢力의 근거지의 배후에 開京에서 뱃길 닿는 곳으로 甄萱의 勢力을 제압하기 위하여 築造한 것은 아닌지 정밀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今西龍을 이어 全榮來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세웠다.

太宗8年(661) 唐軍이 百濟復興軍에 포위당하여 곤경에 빠지자 新羅는 이를 구원한다는 名分을 내세웠으나 실은 단독으로 百濟軍의 근거지를 攻取하려 하였다.³⁰⁾

이것은 661년 2월 당시 熊津城에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에 몰렸던 熊津城과 함께 唐軍을 버리고 新羅에서 엉뚱하게 扶安으로 파병하였다는 假定이지만 이 假定 또한 성립할 수 없는 假定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당시 新羅의 기본적인 戰略이 唐軍과 百濟軍을 싸우게 하며 옆에서 漁父之利를 얻는 것이었을지라도 그리고 唐軍이 끝내는 韓半島에서 쫓아내야 할 존재이기는 하였지만 百濟復興軍을 완전히 소탕하고 高句麗를 멸망시키기까지는 新羅軍을 대신하여 百濟復興軍과 싸워주고 高句麗軍을 견제하며 高句麗를 멸망시키고자한 唐軍은 新羅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였던 것이다.

따라서 唐軍이 포위 전멸당하여 熊津城이 百濟復興軍의 손에 들어간다고거나 그로 인하여 唐軍이 전면적으로 본국으로 철수하게 된다는 것은 新羅太宗 金春秋로서 생각만 해도 몹서리나는 일로서 절대로 좌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29) 大東與地勝覽 古阜縣 參照

今西龍은 古沙比城을 斗順山城에 周留城을 位金岩山城에 比定하였지만 全榮來는 古沙比城을 金沙洞山城에 周留城을 襄山城에 比定하였다.

30) 「周留城·白江·百濟最後決戰에 관한 討論會」(發表要地)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刊

요컨대 661년 2월에 있었던 新羅軍의 파병은 熊津城에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에 몰려 있었던 唐軍을 구원한다는 名分과 함께 熊津城이 百濟軍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新羅로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파병으로 볼 것이지 이것을 熊津城에 포위된 唐軍의 運命과 함께 熊津城을 百濟軍의 손안에 넘겨주는 대신 扶安의 位金岩山城이나 蓑山城을 攻取하기 위하여 扶安으로 파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全榮來의 假定과 같이 新羅軍이 熊津城을 버리고 扶安으로 갔다면 거의 틀림없이 唐軍은 전멸하고 熊津城은 百濟軍의 손안으로 넘어갔을 터인데 그와같은 결과를 누구가 원했겠는가? 그것은 물론 新羅에서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百濟軍이 원했던 결과로 百濟軍은 唐軍을 전멸시키고 회복한 熊津城을 근거로 하여 高句麗軍과 연합하여 新羅軍만을 상대로 싸워서 승부내기를 원하였을 터이기 때문이다. 당시 政治的 · 戰略的으로 唐의 都督府가 설치되어 있었던 熊津城과 함께 唐軍의 가치는 열개의 位金岩山城 스무개의 蓑山城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退路로 보아서도 그 외에 길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軍隊의 敵地로의 進擊路瓦 凱旅路는 대개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進擊路和 遁還路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멀리 高麗忠烈王 17년에 咸鏡道쪽으로 侵入 燕岐에서 大敗하고 平安道쪽으로 달아난 哈丹賊을 예로 들 것도 없이 가깝게 6.25당시 6월에 있었던 北韓軍의 南으로의 進擊路和 9월에 있었던 北으로의 遁還路가 엉망으로 달랐고 9월에 있었던 U. N軍의 北으로의 進擊路和 12월에 있었던 南으로의 遁還路가 엉망으로 달랐다. 이와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遁還路가 이러니 進擊路 또한 이러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史料A]에 전하는 賓骨壤-角山-加尸兮津-加召川은 어디까지나 661년 4월에 있었던 歷史的인 新羅軍의 遁還路였지 進擊路가 아니었던 것이다. 되풀이 되지만 첫째로 中部久麻怒利城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余自進과도 관계가 없었던 扶安에 周留城이 있었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 「中部久麻怒利城」이 誤記가 아니었기 때문에 周留城이 扶安일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2) 周留城韓山設에 대하여

한편 豆良伊城(周留城)을 舒川郡 韓山の 乾支山城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첫째로 舒川郡일대에 古沙比城이 없고 둘째로 乾地山城이 中路 즉 百濟都城(熊津)附近에 있는 山城으로 볼 수 없으니 乾地山城을 豆良伊城(周留城)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李丙燾는 앞서의 [史料B] 文武王報書의 周留城을 韓山の 乾地山城에 比定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定說로 취급되어 현재 各級學校 교과서에 그대로 실고 있지만 그는 [史料A]의 古沙比城을 臨陂에 比定하고 豆良伊城을 錦山郡 富利面에 比定하고 다시 [史料C]의 古沙는 古阜에 比定하였다.³¹⁾

그러나 [史料 A.B.C]는 661년 2월부터 4월까지에 있었던 新羅軍의 파병에 대하여 전한 것인데 어떻게 661년 3월 당시 臨陂에 주둔한 新羅軍이 錦山郡 富利面으로 進攻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錦江을 건너 乾地山城으로 渡攻할 수 있으며 또한 古沙比城을 臨陂에 比定하면서 古沙가 古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그는 周留城과 豆良伊城을 가까이 있는 2개 山城일 것이라고 하였지만 錦山郡 富利面과 韓山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우선 먼 거리이다.

물론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3년조에 豆良伊城 즉 豆陵伊城과 周留城을 「王領金庾信等二十八將軍與之合攻豆陵伊城周留城等皆下之」라고 하여 별개의 2개 山城같이 並記했지만 이것은 별개의 2개 山城이 아니라 周留城은 唐人의 표기이며 豆良伊城·豆陵伊城은 新羅人의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新羅人이 [史料B]에서와 같이 唐人을 본위로 할 때에는 唐人도 알 수 있게끔 豆良伊城·豆陵伊城이라는 표기 대신 周留城이라는 표기만을 일괄 사용하였다.

이와같이 新羅側 표기인 豆良伊城과 中國側 표기인 周留城이 같은 하나의 山城名에 대한 표기인줄을 모른 後代의 史家가 豆良伊城과 周留城을 병기 나열한 것이며 그렇지 않고 만일 豆良伊城과 周留城이 딴 山城이었다면 [史料A]에서 보듯이 661년 3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36일간 新羅軍이 豆良伊城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班師하였다고 못박았으니 班師한 新羅軍이 다시 周留城으로 가서 周留城에서 싸우다가 大敗하고 遁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즉 熊津城에 포위된 劉仁軌 등을 구원하기 위하여 慶州를 출발한 新羅軍이 臨陂에

31) 李丙燾譯註 「三國史記」上 101·102P, 下 83P 參照

주둔하고 錦山郡 富利面에 있는 豆良伊城으로 進攻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班師하였을 터이니 班師한 新羅軍이 錦江을 건너 韓山の 乾支山城을 渡功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여기에서 「豆陵伊城 · 周留城」의 並記에 대하여 철저적으로 史料批判을 가해보기로 하겠다.

즉 당시적 기록으로 新舊唐書의 本文에 周留城이라는 城名만을 전하였을 뿐 豆陵尹城이라는 城名을 전한 예는 일체 없다. 그리고 663년 9월에 周留城을 함락시켰다고 전하였을 뿐 豆陵尹城을 함락시켰다고 전하지 않았고 「豆陵尹城 · 周留城」을 함락시켰다고 전하지도 않았다.

다음 日本書紀의 本文에는 州柔城이라는 城名만을 전하였을 뿐 豆陵尹城이라는 城名을 전한 예는 일체 없다. 그리고 663년 9월 7일에 周柔城이 함락하였다고 전하였을 뿐 豆陵尹城이 함락하였다고 전하지도 않았고 「豆陵尹城 · 周留城」이 함락하였다고 전하지도 않았다.

또한 三國史記의 本文에서는 豆陵尹城(豆良尹城)을 전하였을 뿐 周留城으로 전한 예는 671년에 唐將 薛仁貴에게 준 소위 文武王報書에서 뿐이다.

만일 周留城이외에 豆陵尹城이 따로 있었고 州柔城이외에 豆陵尹城이 따로 있었고 豆陵尹城이외에 周留城이 따로 있었다면 新舊唐書와 日本書紀와 三國史記의 書例가 한결같이 이와같은 것은 없었을 터이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新舊唐書에만 전적으로 보이는 周留城은 唐人들의 표기이며 日本書紀에만 전적으로 보이는 州柔城은 倭人들의 표기, 三國史記에만 전적으로 보이는 豆陵尹城(豆良尹城)은 羅人들의 표기로 볼 것이지 이것을 周留城이외에 豆陵尹城이 따로 있었고 州柔城이외에 豆陵尹城이 따로 있었고 豆陵尹城(豆良尹城)이외에 周留城이 따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三國史記에만 단 하나의 예로 突出한 「豆陵尹城 · 周留城」의 並記는 너무나도 명백한 誤記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誤記의 원인은 당시로부터 600년후인 12세기의 중엽에 들어서 三國史記를 편찬할 때 新舊唐書를 參照하면서 原史料의 豆陵尹城에 新舊唐書의 周留城을 添記함으로써 비롯된 誤記라고 할 것이니 豆陵尹城에 添記된 周留城은 蛇足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豆陵尹城에 添記된 周留城이 蛇足인지 아닌지 또한 豆陵尹城에 州柔城을 添記하면 그것이 蛇足인지 아닌지 또한 周留城에 豆陵尹城을

添記하면 그것이 蛇足인지 아닌지는 新旧唐書의 書例와 日本書紀의 書例 그리고 三國史記의 書例를 검토해 보면 아주 쉽게 판단이 날 것이다.

이와같이 豆良伊城과 周留城은 별개의 2개 山城일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아직은 周留城韓山設에 검토에 견딜만한 內容이 있지 않은 것이다.

李基東은 1993년 6월에 扶安邑에서 있었던 심포움에서 「周留城韓山設에도 취할 점이 있다³²⁾」고 하였지만 무엇이 취할 점인지 모르겠다. 「周留城韓山設에 취할 점이 있다」고 한 것은 周留城韓山設의 實例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말일 것이다.

(3) 周留城洪州設에 대하여

禮山郡 德山の 朴性興은 周留城의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周留城 : 金正浩는 大東地志에서 「洪州牧本百濟周留城」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現洪城邑의 牧城이 아니라 旧洪州牧領인 洪城郡 長谷面 大峴里와 山城里³³⁾의 鶴城山城과 (藝方山城=杜里山城)을 말한다.

(ㄱ) 「洪州牧本百濟周留城」은 虛構

첫째로 歷史研究의 方法으로 1300년전의 周留城의 문제를 研究하는데 朴性興은 당시적 기록인 三國史記와 日本書紀 그리고 新旧唐書 등의 관계 기사를 제쳐놓고 100여년전 金正浩의 「洪州牧本百濟周留城」을 절대적인 史料로 인정하고 출발하였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方法일 것이다.

이유는 金正浩가 1300년전 당시 사람이 아니라 불과 100여년전 사람이 분명하고 「洪州牧本百濟周留城」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典故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史料價値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것이 쉽게 虛構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1300년전 당시적 기록에 의하면 洪州는 분명히 西部任存城에 소속하였고 州柔城(周留城)은 中部久麻怒利城에 소속하였으니 당연히 「洪州牧本百濟周留城」은 虛構일 수

32) 「講評」(「周留城·白江, 百濟最後決戰에 관한 討論會」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刊 49P) 參照

33) 「白江, 內浦說에 대하여」(「周留城·白江 百濟最後決戰에 관한 討論會」圓光大學校 馬韓百濟研究所 刊 36P) 參照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앞서 제1장에서 자상히 밝힌 바와 같이 당시적 기록인 日本書紀의 관계기사에 의하면 余自進이라는 인물이 達率로서 中部久麻怒利城에 소속한 州柔城(周留城)을 근거로 하여 항쟁하다가 후일 州柔城(周留城)이 함락하자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하였으니 州柔城(周留城)은 당연히 中部久麻怒利城에 소속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西部가 분명한 洪州에 州留城이 있었다는 「洪州牧本百濟周留城」은 虛構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各自 限界가 있다고 하듯이 金正浩에게도 그가 歷史의 專家가 아니었기 때문에 周留城의 문제에 관한 三國史記와 新舊唐書의 관계 기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판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개인적인 限界와 함께 史料중에서 특히 日本書紀에 전하는 당시적 기록으로서 대단히 긴요한 관계 기사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時代的인 限界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니 그의 「洪州牧本百濟周留城」 또한 그와같은 限界內의 產物로서 오늘날의 史學水準으로 볼 때 문제도 되지 않는 虛構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虛構를 근거로 하고 그 위에 구성한 朴性興의 周留城洪州設과 함께 白江內浦設 또한 虛構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朴性興에게는 史料로서 金正浩의 「洪州牧本百濟周留城」 이외에 짚고 일어서 周留城洪州設과 함께 白江內浦設을 起死回生시킬 수 있는 제2 제3의 史料가 있는 것일까? 있다면 장한 일이라 할 것이다.

(ㄴ) 周留城洪州說과 任存城

筆者는 10여년간에 걸친 探索끝에 「663년 8월에 牙山灣으로 流入하는 安城川河口的 白石浦로 上陸한 唐軍은 新羅軍과 함께 西部의 百濟軍과의 연계를 끊으면서 曲橋川쪽으로 진격 溫陽·豐歲을 거쳐 燕岐지구로 육박하여 背後에서 周留城을 포위 공격하여 20일만에 함락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후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몰라도 朴性興은 663년 8월에 白石浦에 隣接한 密頭里로 上陸한 唐軍은 新羅軍과 함께 任存城의 발밑으로 흐르는 無限川의 계곡을 따라 任存城南 30리의 長谷面의 鶴城 즉 周留城으로 진격할 포위 함락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663년 8월 당시 분명히 아직도 막강했던 任存城의 百濟軍은 왜 발밑으로 흐르는 無限川의 계곡을 따라 진격하는 羅唐軍을 공격하여 격퇴시키지 않았으며 더구나 任存城에서 오프드리면 코당을 南30리의 가까운 傘下에서 周留城이 포위되어 20일만에 함락당하는 것을 못본체하고 기어이 함락당하게끔 버려둔 것일까?

이것이 虛構가 아니라면 세상에 虛構라는 말이 처음서부터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虛構는 다음과 같이 任存城의 百濟軍을 誣告하여 利敵의 反逆罪를 뒤집어 씌우는 무서운 機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朴城興의 주장대로라면 결과적으로 任存城의 百濟軍은 侵略해 들어오는 敵軍들에게 길을 내주고 作戰地區인 西部일대를 내주어 周留城이 함락당하게끔 敵軍을利롭게 하였으니 당연히 利敵의 反逆罪가 성립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百濟史研究家들이 보기에 周留城洪州說은 任存城의 百濟軍에게 虛構의 利敵의 反逆罪를 뒤집어 씌우고 그 증거로 金正浩의 「洪州牧本百濟周留城」을 들이대며 옥박지르는 잔인한 內容에 틀림없는 것이다.

하물며 죽은 者에게는 말이 없고 산 者의 입을 빌려서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거늘 이제는 말이 없는 任存城의 百濟軍에게 산 者의 입으로 虛構의 反逆罪를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周留城이 任存城의 傘下인 洪城이라야 하겠는가?

朴成興으로서는 周留城이 洪城이기만 하면 그래도 좋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증거로 내세운 金正浩의 「洪州牧本百濟周留城」은 虛構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任存城의 百濟軍에 뒤집어 씌운 利敵의 反逆罪는 事必歸正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높고 빛나고 그리고 孤高한 任存城의 面目에 먹칠을 하므로 百濟史의 面目에 먹칠을 하고 百濟史의 面目에 먹칠을 하므로 民族史의 面目에 먹칠을 하고자 작정이라도 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아예 任存城傘下の 洪城에 있지도 않았던 周留城이 있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ㄷ)황당한 白江內浦說

筆者는 앞서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白江之口·白村江을 牙山灣으로 流入하는 安城川河口의 白石浦로 比定하고 663년 8월에 있었던 唐軍의 上陸地는 白石浦라고 하였다.

이것이 筆者에 의한 「白江安城川說」이지만 이것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663년 8월 27일과 28일에 있었던 海戰을 新旧唐書에는 분명히 「白江之口の 海戰」으로 전하고 日本書紀에는 「白村江의 海戰」으로 전하였으니 白江을 오늘날의 安城川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等式이 성립될 것이다.

白江之口=白村江

白江之口(安城川河口)=白石浦

※ 白村江=白石浦

江(エ)=浦(エ)

(ハクスキのエ)=(ハクスキのエ)

村(スキ)=石(suk, スキ)

이와같은 等式의 성립으로 이때의 白江之口 · 白村江을 扶安의 東津江之口도 아니고 錦江之口도 아닌 安城川河口의 白石浦로 比定해서 틀림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후일 朴性興은 다음과 같은 「白江内浦說」을 내세웠다.³⁴⁾

(1) 白江 牙山灣의 南岸(唐軍上陸地는 密頭里<牙山郡 仁州面>

(2) 白江之口 牙山灣의 南岸入口部位, 구체적으로는 唐津軍 石門面 長古項里……

(3) 白村江-((ハクスキのエ) 唐津郡 石門面 三峰里의 <차돌백이마을 - 白石村>의 앞 · 뒤浦口를 <곰개 - 熊津>라고 한다. <江 - エ>라 함은 日本語의 (入江 - イリエ) 즉 灣

大前提-----牙山灣이 「白江」이다.

이와같은 것이 「白江内浦說」의 골자이지만 大前提부터 문제가 될 것이다. 즉 牙山灣은 바다가 분명하고 白江은 江이 분명하기 때문에 牙山灣이 白江일 수 없고 白江이 牙山灣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白江을 安城川으로 보면 왜 안되고 항당하게도 白江을 牙山灣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물론 白江을 安城川으로 보면 白江安城川說은 成立하지만 白江内浦說은 成立할 수 없기 때문에 安城川을 배제하기 위하여 牙山灣을 白江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黑

34) 앞의 論文 參照

은 黑이요 白은 白이듯이 바다는 바다요 江은 江일 것이니 牙山灣이 白江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 (1)白江을 牙山灣의 南岸-密頭里라고 하였지만 白江은 江이요 牙山灣의 南岸-密頭里는 陸地이니 白江이 陸地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牙山灣을 學論한 바에야 白江을 牙山灣으로 流入하는 安城川으로 보면 왜 안되고 꼭 牙山灣이어야 하고 다음에는 陸地인 密頭里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물론 白江을 安城川이라고 하면 白江安城川說은 成立하지만 白江內浦說은 成立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를 江이라 하고 江을 陸地라 한 것이다.

그리고 (2)白江之口를 牙山灣의 入口인 唐津郡의 長古項里라고 하였지만 白江之口는 白江이라는 江의 入口이며 長古項里는 牙山灣이라는 바다의 入口이기 때문에 白江之口를 牙山灣之口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白江之口를 牙山灣에 流入되는 白江 즉 安城川河口라면 왜 안되고 꼭 바다가 분명한 牙山灣之口인 長古項里라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물론 白江之口를 구체적으로 安城川河口라고 하면 白江安城川說은 成立하지만 白江內浦說은 成立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황당하게도 口(牙山灣之口)를 口(白江之口)이라 한 것이지만 口가 口일 수는 없는 것이다.

(3)白村江을 江도 없고 내도 없는 石門面의 차돌배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白村江을 江도 있고 浦口도 있고 白沙도 있고 古城里에 古城도 있었던 安城川河口의 白石浦면 왜 안되고 꼭 江도 없고 내도 없는 石門面의 차돌배기야만 하는가?

그것은 물론 白村江이 安城川河口의 白石浦라면 白江安城川說은 成立하지만 白江內浦說은 成立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황당하게도 牙山灣을 白江이라 하고 牙山灣之口을 白江之口라 하고, 그리고는 白江之口와 白村江이 內浦의 唐津郡쪽에 있었다고 주장해 보아도 唐津郡쪽에 安城川이 있는 것도 아니고 江이 있고 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安城川을 唐津郡쪽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그리고 그 쪽에 江을 만들고 내를 만들기 전에는 白江內浦說은 成立할 수 없을 것이니 永遠히 不可能한 白江內浦說이라 할 것이며 永遠히 可能한 白江安城川說이라 할 것이다.